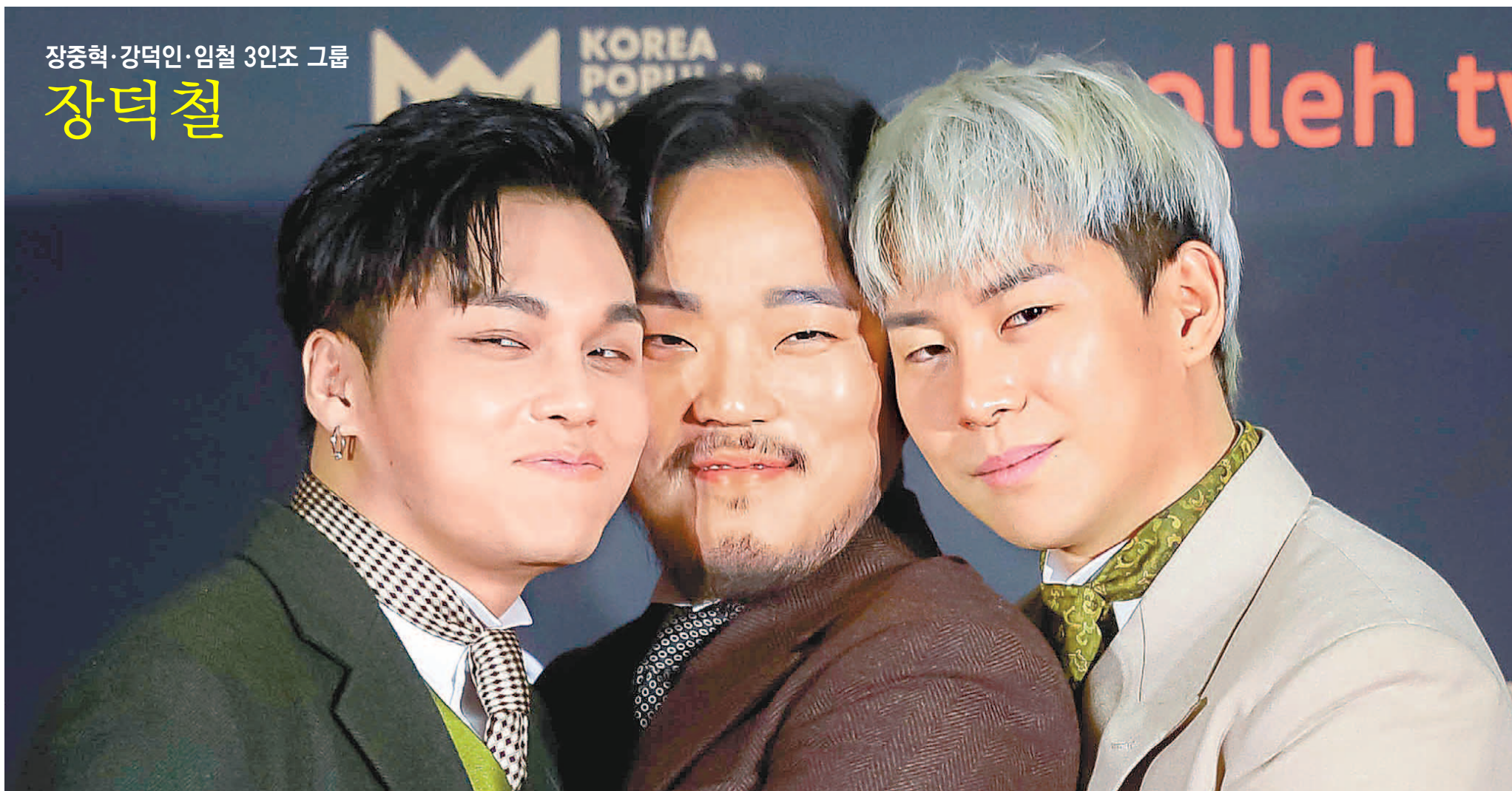


“사실 외모도 신경쓰는데…팬들은 흔한 얼굴이라 좋대요”



3년의 무명 생활 끝에 2018년을 뜨겁게 보낸 그룹 장덕철.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가요계에서 제기된 ‘사재기 의혹’으로 마음고생도 했다. 그들에게 2018년은 “열탕을 냉탕과 동시에 오간 격변기”였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대중음악상 시상식 레드카펫 모습.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장·덕·철’.

화제의 이름이다. 지난해 가장 인기 있는 곡(음원·가온차트 집계)으로 꼽혔던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그날처럼’을 부른 주인공이다.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음원 사재기’ 의혹, 그 중심에 서기도 했다. ‘장덕철’이 남성 솔로가수가 아니라 3인조 남성 보컬그룹이라는 사실은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장중혁(25), 강덕인(26), 임철(29), 멤버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팀명으로 2015년 데뷔한 이들은 지난해 제대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1년이 지난 지금, 한 해를 돌아켜 보니 “온탕도 아닌 열탕을 냉탕과 동시에 오간 격변기”였다.

2015년 전국영상가요제에서 1위를 차지하며 디지털 싱글 ‘그때 우리로’로 가요계에 데뷔, 3년간의 무명시절을 보내고 2018년 가요계를 뒤흔들었으니 그렇게 말할 만하다. 어쨌든 이들에게 “다시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들은 2017년 11월 발표한 ‘그날처럼’이 차트에 처음 진입한 이후 점차 순위가 올라 2개월 만에 각종 음원차트를 장악하며 두 달 남짓 1위를 이어갔다. 처음에는 ‘역주행’이라는 단어로 이들에게 관심을 보낸 대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름조차 낯선 이들이 팬덤 큰 아이돌 가수까지 제치면서 의혹의

시선을 버리지 못했다.

“‘역주행’이라는 상황도 맞지 않는 표현이다. 역주행은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 발표한 곡이 뒤늦게 차트에 진입해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지 않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음원 발표 시점부터 90~100위권에 진입해 점차 순위가 올라갔다. 이유가 어쨌든 그런 상황은 뒤늦게 1위를 하게 되니 믿기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일이지 않나. 카페나 음식점에서 우리 노래가 나온다는 말을 들으니 진짜 신기했다. 당시에는 열렬하고 인지를 잘 못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어떤 상황인지 알겠더라.”

사실 장덕철은 방송사의 흔한 음악프로그램이나 예능프로그램에 전혀 출연하지 않고 SNS 일소문만으로 음원 차트에 올랐다. 버스킹이나 술집 등에서 편한 분위기로 부른 노래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됐고, 감미로운 발라드와 뛰어난 보컬 실력 등으로 호감을 샀다.

“우리는 그저 노래가 좋아서 뭉친 그룹이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문턱이 너무 높았다. 남들처럼 ‘뽕뽕한’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 손으로 자금자금을 해야만 했다. 버스킹 무대에서 조금씩 알아봐준다고 해도 우리를 알릴 기회가 필요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페이스북 등 SN

그저 음악이 좋아서 뭉친 세 남자 작곡 음원차트 장악…열탕과 냉탕 신곡 ‘알았다면’ 공감 이끌어 인기 ‘방송 출연요? 아직은 겁나요 하하’



장중혁 강덕인 임철

2 그룹 장덕철?

▲장중혁(메인보컬)·강덕인(리드보컬)·임철(보컬)로 구성된 3인조 그룹 ▲2015년 전국영상가요제에서 1위를 차지하며 가요계 첫 발 ▲같은 해 디지털 싱글 ‘그때, 우리로’ 정식 데뷔 ▲2016년 싱글 ‘메모리스’ 발표 ▲2017년 싱글 ‘그날처럼’ 발표 ▲2018년 미니음반 ‘그룹’ 발표

S에서 홍보를 하는 거였다. ‘설마 이걸로 되겠어?’ 하는 거까지 다 해봤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었으니까. 밀도 끝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게 자양분이 되어 지금까지 오게 됐다.”

아직 장덕철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방송 출연이 거의 없으니 셋이 함께 다녀도 쉽게 얼굴을 알아보는 이들이 없다. 이들은 “의도치 않게 초심을 지키는 그룹”이라며 웃었다.

“외모를 봐도 주위에 있을 법한 친구들이지 않나. 연말부터 시상식에 자주 가는데 다른 가수들을 보니 이질감이 들 정도였다.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 술집 사장님 같은 편한 매력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팬들도 ‘이 팀은 때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멋있게 보이려고 외모도 관리하고 신경 쓰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서 좋다고 하더라. 하하하!”

최근 발표한 신곡 ‘알았다면’도 차트에서 꾸준히 인기가. 이들의 특기인 독백형 가사가 이번에도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때, 우리로’는 임철, ‘그날처럼’은 덕인이 실제 겪은 이별 스토리에 멜로디를 붙였다. ‘알았다면’의 가사는 강덕인이 실제 자신의 이별 경험을 담아 썼다. ‘실화라서 더 공감 간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우리 나이 때에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사

랑, 만남, 이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의도해서 뭘 쓴다면 노래를 부르는 우리보다 팬들이 더 먼저 안다. 그런 노래는 하고 싶지 않다. 사람마다 공감하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서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싶다.”

이런 힘으로 지난해처럼 차트를 휩쓸지 않아도 이들의 노래를 찾아듣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와 전혀 달랐던 입지와 인기에도 이들은 앞으로도 방송 출연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멤버들과 상의해 결정한 일이다. 회사에도 요청을 드렸다.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이 너무 무서웠다. 말도 노련하게 하지 못 할뿐더러 부족한 게 너무나도 많다. 들떠서 실수를 하게 될까봐 겁난다. 기회는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일단 장덕철이라는 그룹에 집중하고 책임감으로 노래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앞 뒤 재지 않고, 진솔한 음악을 들려드리는 게 목표다. 약속한 게 또 있다.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낮추자’는 거다. 우리의 발인 하나로 불쾌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간이 흘러 ‘선배’나 ‘선생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가 지는 한날 ‘미생’이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한다.”

이정연 기자 annj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연예뉴스 HOT 5

아이유 부동산 투기 의혹 떠들썩

가수 아이유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7일 한 매체는 아이유가 2018년 1월 46억원을 들여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가 지나가는 부근인 경기도 과천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시세가 69억원으로 매매 당시보다 23억원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이유가 거래한 곳은 평당 약 2200만원인데, 비슷한 시기 같은 지역의 실제 거래가가 평당 1200만원”이라며 “투기가 목적이었다면 돈을 더 주고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이유의 카카오톡 관계자는 “현재 아이유의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매각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유호진 PD, 몬스터유니온 떠난다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등을 연출한 유호진 PD가 몬스터유니온을 떠난다. 7일 한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유호진 PD는 최근 몬스터유니온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 PD는 이날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이를 인정하고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2월 이직 등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 PD가 몬스터유니온을 나오기로 결정하면서 그의 행보에 방송가가 주목하고 있다. 유 PD는 ‘1박2일’을 연출해 유명세를 타며 2016년 KBS를 퇴사하고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으로 이직했다. 몬스터유니온은 KBS와 KBS의 계열사가 공동 출자한 콘텐츠 제작사다.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 美 골든글로브 작품상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가 미국 골든글로브까지 장악했다. 7일(한국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보헤미안 랍소디’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함께 라미 말레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겼다. 또 가장 많은 6개 부문의 후보에 오른 ‘바이스’는 주연 크리스찬 베일이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데 그쳤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국계 배우 산드라 오의 인상적인 수상 소감으로 시선을 모았다. TV시리즈 드라마 부문에서 줄리아 로버츠, 엘리자베스 모스 등을 제치고 ‘킬링이브’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는 소감 마지막에 한국어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워너원 하성운, 내달 솔로 앨범 발표

그룹 워너원의 하성운도 솔로로 나선다. 소속사 스타그램이엔티는 7일 “하성운이 2월 말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솔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워너원의 보컬로 활동한 음악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직접 프로듀서로 참여해 앨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워너원의 또 다른 멤버 강다니엘과 윤지성, 김재환이 솔로 활동을 발표했다. 하성운은 지난해 12월31일 워너원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소속사와 다각도로 논의해 왔다. 24~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콘서트로 워너원 멤버로서 활동을 마무리한다.

‘효도 논란’ 신동욱, 드라마 자진 하차

연기자 신동욱이 최근 불거진 ‘조부 효도 사기’ 의혹으로 tvN 드라마 ‘진심이 닿다’에서 자진 하차했다. ‘진심이 닿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신동욱의 하차가 드라마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신동욱의 촬영 분량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제작진은 신동욱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동욱의 조부는 손자가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지만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부가 가족 구성원에게 폭행과 폭언으로 상처를 입혔다”며 조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모았다.